

LÉVY GORVY

레비고비 뉴욕, 앤디 워홀의 여성 초상화 작품전 개최

워홀 우먼
Warhol Women

2019년 4월 25일 - 6월 15일

레비고비 뉴욕
909 Madison Avenue
New York

오프닝 리셉션: 4월 24일 수요일, 6-8PM



앤디 워홀 <붉은 재키> 1964, 아크릴과 실크스크린, 101.6 x 101.6 cm. 사진:

Froehlich Collection, Stuttgart. 제공: Froehlich Collection, Stuttgart. © 2019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Licensed by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기법 실크스크린이나 후기 작품의 극적인 붓질을 통해 드러난다. 거칠고 반항적인 동시에 섬세하고 내면적인 워홀의 작품들을 통해 <워홀 우먼>은 작가의 예술세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라 할 수 있는 여성성의 정의와 정체성, 여성 권익신장의 문제를 함께 조명하고자 한다.

전시의 도입부는 워홀이 1960년대 초 작업한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Jacqueline Kennedy Onassis)의 다양한 초상화 작품으로 문을 연다. 남편 케네디 대통령 암살 전과 후 오나시스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들은 화려한 삶에서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치달은 그의 인생을 영화적 내러티브로 조명하며 공적인 스펙터클이 되어버린 그의 애도 과정을 그린다. 애도하는 오나시스의 모습을 그린 단색의 초상화들은 영부인 시절 그의 화려한 모습을 상징적인 붉은색으로 포착한 <붉은 재키 Red Jackie> (1964)와 병치되어 전시된다.

뉴욕 - 레비고비는 앤디 워홀(Andy Warhol)의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작업 중 여성 초상화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전시 <워홀 우먼>을 2019년 4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한다. 메디슨가의 랜드마크인 레비고비 뉴욕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워홀의 작가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회화 작품을 통해 여성성과 아름다움, 권력을 둘러싼 이상과 신화에 대한 작가만의 오랜 고민과 미묘한 관계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소장품부터 기념비적 규모의 캔버스까지 이번 전시에 포함된 모든 회화 작품들은 워홀의 작품세계 전반에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호함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워홀의 트레이드마크인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된 전시의 초상화들은 그의 작업실이었던 '팩토리(Factory)'에서 공산품처럼 찍어낸 듯 일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오랜 시간 작품과 마주하다 보면 작품 속 인물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과 친근함을 드러낸다. 매끄럽고 화려한 표면과 달리 깊이 있는 인간적 성찰을 동시에 담은 이 작품들은 정의 불가능한 워홀의 작품세계를 정확히 반영하며 이러한 특성은 초기 작품의 망점(halftone)

이와 더불어 1960년대 워홀이 집중적으로 그린 또 다른 인물인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모습이 민트, 리커리시(감초색), 담청색(azure) 등 다양한 색상의 초상화로 전시된다. 정면 가까이서 포착한 먼로의 얼굴을 그린 <리커리시 마릴린 Licorice Marilyn> (1962)과 <민트 마릴린(청록색 마릴린) Mint Marilyn (Turquoise Marilyn)> (1962) 등의 작품은 이미지 포화 시대의 성화(聖畫)와 같이 관객에게 동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또 다른 출품작인 <세 모나리자 Triple Mona Lisa> (1963)는 초상화의 역사를 반추하며 현대에 가장 널리 재생산된 이미지 중 하나인 모나리자의 초상을 반복적이지만 각자 다른 인쇄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매혹적이면서도 불가사의한 모나리자의 모습은 이를 소유하려는 관객의 욕망에 저항하며 아름답지만 강인한 여성성을 상징한다.

갤러리 2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에서는 워홀의 초기 초상화들이 소개된다. 1963년작이자 주요 초기작 중 하나인 에셀 스컬(Ethel Scull)의 초상화는 미술 컬렉터이자 뉴욕 사교계 명사였던 그의 모습을 때로는 익살스럽고 때로는 활기 넘치는 다양한 포즈와 표정으로 담고 있다. 당시 최첨단 사진 기술이었던 즉석 사진 부스에서 촬영된 작품 속 이미지는 스컬은 물론 워홀 본인 역시 열망했던 자기유명세 (self-made celebrity)의 위력을 표출한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중반 연작인 <숙녀와 신사 Ladies and Gentlemen>를 포함하여 사회 변동기에서의 권력을 그린 일련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당시 뉴욕의 클럽과 거리에서 활동하던 흑인과 히스패닉 드래그 퀸들의 모습을 담은 이 연작에서, 주인공 중 하나인 윌레미나 로스(Wilhelmina Ross)는 당당한 모습으로 관객을 응시하며 자유분방하고 유연한 성 정체성을 표출한다. 다른 출품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 역시 캔버스 표면의 생동감 넘치는 색감은 작품 속 인물을 드러냄과 동시에 감추며 친밀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전달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 앤디 워홀은 사회 유명인사의 초상화가로서 명성을 날리며 영화, 음악, 패션, 정계와 사교계를 아우르는 수많은 여성의 초상화를 규격화된 40인치 캔버스에 작업하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서는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을 벽면 전체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디스플레이로 소개한다. 폴라로이드 스냅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작품들은 돌리 파튼(Dolly Parton)이나 라이자 미넬리(Liza Minnelli)와 같은 엔터테이너들이 무대에서 선보였던 화려함을 정열적인 색감으로 재현하며 캔버스에 고스란히 옮기고자 했다. 동시에 워홀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던 저명한 여성 선구자들 (전시에는 전 이스라엘 수상 골다 메이어(Golda Meir)와 작가이자 미술 애호가였던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의 초상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만큼이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밖의 여성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곤 했다. 당시 이미 별세한 자신의 어머니 줄리아 워홀라(Julia Warhola)를 그린 그의 1974년 작품에서는 이례적으로 작가의 개인적인 삶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수많은 여성 초상화에 담긴 개인의 사적인 모습과 공적인 페르소나 사이 미묘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워홀 우먼>은 뉴욕과 코네티컷주의 브랜트 재단(Brant Foundation),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프뢰리히 컬렉션(Froehlich Collection)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미술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다수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워홀의 회화 작품과 더불어 작가의 <스크린 테스트 Screen Test> 영상 일부가 함께 소개된다. 흑백 필름의 <스크린 테스트> 단편 영상은 그의 초상화 작업을 필름이라는 새로운 매체로 재해석하며 작가가 어떠한 시각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재현하려 했는지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영상이 소개되는 전시실에는 벽면 전체에 알루미늄 포일 설치되어 작가의 작업실이었던 팩토리에 대한 오마주로서 영상이 촬영되었던 당시 작업환경을 그대로 재현한다. 일반적으로 할리우드에서 배우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스크린테스트 양식을 차용함으로써 워홀은 카메라 앞에 선 주인공에게 어떠한 지시나 명령 없이 진행되는 촬영과정을 통해 그들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이를 ‘스타’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레비고비 (Lévy Gorvy)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뉴욕 메디슨가 909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센트럴 홍콩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는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춘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비고비 뉴욕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레비고비 홍콩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 2613 9568

www.levygorvy.com | [@levygorvy](https://www.instagram.com/levygorvy)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Lévy Gorvy, marta@levygorvy.com

Andrea Schwan, Andrea Schwan Inc., andrea@andreaschwan.com